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1년 여름호
Vol. 27



국가회계 동향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소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0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재정통계 동향

2020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익법인회계 동향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CONTENTS

2021년 여름호

Vol. 27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27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1년 여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김완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소개
- 17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 19 제31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1) IPSASB ED 75, 리스에 관한 KIPF 의견제출(안)
 - 2) IPSASB 정보요청서,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 유사 약정
- 24 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IPSASB),
2021년 1·2분기 정례회의 개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8 2020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 31 2021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재정통계 동향

- 36 2020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38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Brief 발간
- 45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46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Brief 발간



공익법인회계 동향

62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세미나

78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센터 동향

- 70 '공공회계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
- 71 국가회계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
- 73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공지사항

- 83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소개
-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 제31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1) IPSASB ED 75, 리스에 관한 KIPF 의견제출(안)
 - 2) IPSASB 정보요청서,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 유사 약정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2021년 1·2분기 정례회의 개최

01 발생주의 활용사례 시리즈: 영국 「재정위험보고서」 소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도 연구과제로 「해외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사례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호주 총 7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연구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통한 자산과 부채관리 및 재정위험의 식별을 주제로 각국의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 정도와 재정관리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영국의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 분석보고서를 시작으로 발생주의 활용사례를 시리즈로 수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공공재정에 대한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예산책임청을 설립하였다. 예산책임청은 2년마다 재정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재정위험보고서(Fiscal Risks Report, FRR)』를 발간하고 있다. 2019년 재정위험보고서는 1장 재정위험 접근방식, 2장 거시경제적 위험, 3장 금융부문 위험, 4장 수입 위험, 5장 기초지출 위험, 6장 재정상태표 위험, 7장 채무이자 위험, 8장 정책 위험, 9장 기후변화 위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호는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을 식별한 챗터인 재정상태표 위험과 채무이자 위험에 집중하였다.

또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으며,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 「재정위험보고서」)

<https://obr.uk/frr/fiscal-risks-report-july-2019/>

가. 배경

영국 의회는 2015년 10월, 예산책임 헌장을 개정하여 예산 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최소 2년에 한 번 「재정위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1년 이내에 공식적인 대응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 따라 예산 책임청은 2017년 7월 첫 「재정위험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정부는 2018년 7월 이에 대응하는 「정부대응보고서(MFR)」를 제출하였다.



예산책임청은 첫 「재정위험보고서」(2017년)를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중기예측과 장기전망을 위협할 수 있는 충격과 압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이번 두 번째 「재정위험보고서」는 첫 보고서에서의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최근의 경제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확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재정위험은 “예산 또는 기타 예측 시점에서 예상했던 재정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경제·재정전망보고서에서 다른 공공부문 지출, 수입, 차입 및 채무에 대한 향후 5년의 중심적 전망(central projection)과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상의 50년 전망과의 잠재적인 이탈(potential deviation)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위험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사회복지와 같은 정부의 주요 활동을 위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오히려 재정위험을 무리하게 없애려는 노력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위험이 보이지 않게 민간부문으로 이전한다면, 이는 당장은 덜 급하겠지만 불투명하고 잠재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드는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

영국정부는 2017년부터 우발부채 관리개선, 재정상태표에 대한 보다 투명한 보고, 통계청을 활용한 재정위험의 모니터링 및 관리개선 등 유용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만연한 재정환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예산적자를 더욱 줄였고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를 낮추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차입금 조달 시 지수연계 국채 발행에 덜 의존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노출을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정부의 재정위험은 중기적으로 더 커졌다. 2020년대 중반까지 예산균형을 맞추려던 입법목표를 거의 포기했고, 연간 270억파운드의 국민보건서비스

(NHS) 합의로 인해 재무부의 엄격한 지출통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차기 정권에서도 세금감면과 지출증가에 관한 제안이 많아 재정건전성과 공공재정관리는 느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정부차입과 부채를 증가시키는 많은 위험 중 일부에 대해 다룬다. 영국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 「재정위험보고서」는 노딜, 무전환 브렉시트의 잠재적 영향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순조로운 브렉시트를 기반으로 한 3월 예측과 비교하여 2020~2021년 차입금 대비 연간 약 300억파운드가 추가되며, 2023~2024년까지 GDP의 약 12%의 순부채가 추가된다.

재정위험은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며, 항상 예측치 못한 충격에 노출된다. 따라서 정부는 충격이 닦혔을 때 대응하기 위하여 더 유리한 시기에는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불가피한 미래의 충격으로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지속적인 압력이 있으며,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상승압력이 높다. 장기적으로 건강 및 사회 복지에 대한 비인구적 비용 압력과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다뤘다. 예산책임청은 영란은행의 향후 시나리오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 관련 재정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개발할 계획이다.

나. 2019 「재정위험보고서」 요약

재정위험보고서는 국가 전반의 다양한 재정위험 및 시나리오 분석을 다루고 있다. 재정위험은 거시 경제적, 금융부문, 수입, 기초지출, 재정상태표, 채무이자, 정책 기후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재정위험 접근방식을 설정한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향후 5년과 장기적으로 50년간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로 ‘하락(downside)’에 초점을 둔다. 또한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재정위험 논의의 목적이다. 특정위험이 중장기적으로 구체화될 확률과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정부가 이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제2장에서는 거시 경제적 위험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 growth) 감소, 경기침체 등 다양한 거시 경제적 위험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산출격차(output gap)의 추정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위험을 다룬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장기적인 GDP 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 침체를 대비한 통화 및 재정정책 수행, 그리고 주택 부문 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금융부문과 관련된 재정위험을 고려한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축소되었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공공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금융부문의 재정위험 요소는 금융위기의 잠재적 비용과 세입축소의 영향,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등이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규제강화와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4장에서는 수입(Revenue)에 대한 재정위험을 다룬다. 과세기반 변화 및 북해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 고갈에 따른 장기적 압력, 세입의 집중화(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납세자로부터 많은 수익이 발생)를 주로 살펴본다. 또한 GDP의 약 8% 수준으로 증가한 조세지출(R&D 투자 등 정책목표 촉진을 위해 고안) 역시 재정위험 요소이며,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과세이슈가 있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수입 측면의 재정위험 평가 및 그 관리방안에는 동의하며, 과세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북해 해체비용을 관리하고 줄이는데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였다. 세금격차 해소, 세입집중화, 디지털화를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기초지출(Primary spending)에 대한 재정위험을 고려한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가 통제하는 기초지출에 대한 위험으로 보건,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위임정부(devolved administrations),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원전해체, 의료과실, 소송) 관련 지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며, 지출통제 기능이 압박을 받고 있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지출통제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 의료비 지출의 자원 확충을 위한 10년 계획 수립 등 위험을 인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지출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제6장에서는 재정상태표 위험을 다룬다.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거래,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이전,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평가효과를 통해 재정상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살펴본다. 재정상태표 거래에는 민간부문 대출 또는 자산 취득을 위한 부채 발행 등이 있을 수 있고, 재정상태표 이전에는 민간부문 부채를 부담(실제 또는 통계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정상태표 평가효과에는 외환 보유고에 대한 통화이동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밖에 재정환상, 정부자산·부채관리, 정부보증의 증가, 재분류의 가능성 등에 따른 위험도 고려한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재정상태표 개선, 자산매각 시 투명성 제고 조치, 보증 및 우발부채 관리(새로운 승인 체제 마련) 등 전반적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재정상태표 검토(Balance sheet review)를 통해 정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개선, 자산매각 기회 식별, 보유 자산에 대한 수익 개선, 관련 위험을 감소시켰다. 정부부문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채무이자 관련 위험이 주제이다. 공공채무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정부의 총채무에 대한 이자지출과 관련된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공공부문은 2018~19년 기준 민간 및 해외 부문에 385억파운드(GDP의 1.8%)의 채무이자를 지급했다. 채무,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민감도와 영란은행의 자산매입프로그램(APF)이 유효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정부대응보고서) 정부는 채무이자 관련 위험평가에 대부분 동의하며, 위험범위 축소를 포함한 위험 해결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였다. 지수연계국채(index-linked gilts)를 발행하고 부채가 GDP 대비 계속 감소하도록 재정정책을 설정하고자 한다.

제8장에서는 재정정책 위험을 다루며, 지난 10년간 재정적 정책위험의 잠재적인 원인과 재정정책의 동인을 살펴본다. 공공부문 순차입(총수입 - 총지출)은 재정상태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제9장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경제위험과 재정위험의 성격을 조사한다. 극심한 기후 현상 및 점진적인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위험이 존재한다. 마지막 제10장에서는 노딜, 무전환 브렉시트의 특정한 시나리오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여준다. 이는 예측이라기보다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공공재정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다.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 분석 세부내용

1) 재정상태표 위험

재정상태표 위험 챗터에서는 ① 공공부문의 다양한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를 소개하고 ② 재정상태표 위험의 잠재적 요인인 ‘스톡-플로우 조정’¹⁾에 해당하는 재정상태표상 거래, 재정상태표상 이전, 가치변동에 대해 다룬다. ③ 재정환상(fiscal illusions) 이슈와 ④ 무형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① 공공부문의 다양한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정상태표(자산-부채) 정보

영국에서는 <표1>에서 보듯이 적용범위와 회계처리가 상이한 자산·부채 정보가 제공된다. 공공부문순채무(PSND), 공공부문순부채(PSNFL), 재무제표(WGA)상 부채 등이 그것이다. 모든 재정상태표에서 저량(자산·부채)지표가 유량(수입·지출)지표나 국민 소득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정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재정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1 공공부문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비교(2017~2018)

부채 유형(A)		자산 유형(B)		재정상태표 합계C(A-B)	
10억£		10억£		10억 £, GDP %	
장기국채(gilt) 및 단기국채(T-Bill)	1,505	외화보유액	116		
기타채무	457	기타 유동자산	68		
PSND 부채	1,962	PSND 자산	183	PSND	1,779 85
기타 금융부채	118	기타 금융자산	481		
PSNFL 부채	2,080	PSNFL 자산	664	PSNFL	1,416 67
연금부채	1,865	비금융자산	1,208		
총당부채	423	기타 평가차액	141		
기타 평가차액	211				
재무제표(WGA)상 부채	4,579	재무제표(WGA)상 자산	2,014	재무제표(WGA)상 순부채	2,565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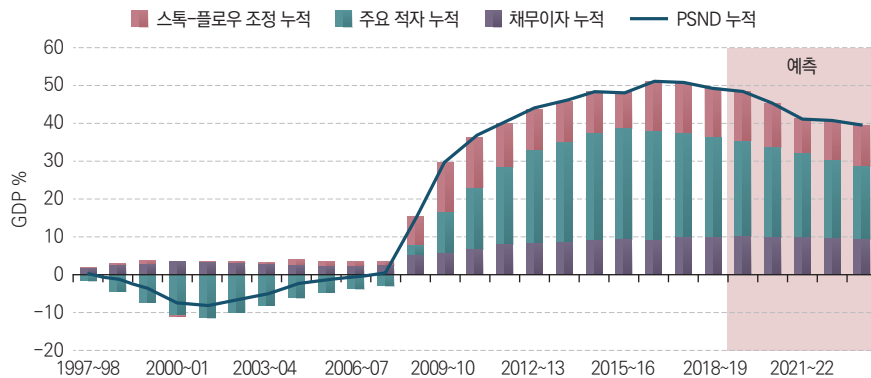
주: PSND상 ‘기타 채무부채’는 영란은행의 순부채를 포함함

1) 스톡-플로우 조정이란 재정수지 외에 정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제 금융, 공기업 출자 등과 같이 정부가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분, 채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

② 재정상태표 위험의 요인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림1>과 같이 스톡-플로우 조정의 누적 효과는 공공부문 순채무(PSND)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의 PSND의 변동은 대부분 차입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스톡-플로우 영향은 미미했다. 그러나 2007~08년부터 스톡-플로우 조정은 GDP 대비 PSND의 상승률 49% 중 12% 포인트를 차지했으며 현재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그림1 1997~98 이후 순채무의 변동요인



주: 주요 잔액 또는 채무 이자로 설명되지 않는 잔액은 스톡-플로우 조정으로 계산됨

출처: ONS(통계청), OBR(dPtksordlacjd)

스톡-플로우 조정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이 있으며, 스톡-플로우 조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재정상태표 거래:** 정부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민간부문에 용자하기 위해 채무를 발행한 경우를 말한다.
 예시로 금융위기 당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과 Lloyds Banking Group의 주식 매입 또는 최근에 브리티시 스틸에 2018년 유럽연합 탄소배출부채(2018 EU carbon emissions liability) 요건 충족을 위한 용자 등이 있다.
- 재정상태표 이전:** 특정 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공공부문 재정상태표에 포함되거나 분리되는 '재분류'인 경우, 대응되는 현금흐름 없이 공공부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상태표상 이전은 이러한 재분류를 통해 민간의 자산과 부채가 공공부문에 흡수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2년 Royal Mail의 누적된 연금부채 및 관련 자산을 정부가 인수한 실제 사건 또는 2015년 영국 주택협회를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편입했다가 2017년 다시 민간부문으로 분리한 통계적 처리가 포함된다.

- **기존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 정부가 노출되는 평가 위험은 대부분 외화보유액과 관련이 있다. 미헤지 외화보유액(1/3에 해당)의 통화가치는 환율에 의해 등락을 거듭한다. 2016~17년에 통화 가치의 큰 하락은 적립금의 가치를 44억파운드(4.0%)까지 증가시켰다. 이후 2017~18년에는 재평가로 인해 23억파운드가 감소했고, 2018~19년에는 29억파운드가 증가했다. 특히 브렉시트를 고려했을 때 향후 대규모 환율 움직임의 가능성이 크게 남아 있다.
- **시차 또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 시차는 공공부문 순차입금(PSNB)이 발생 주의로 기록되는 반면 PSND는 대체로 현금주의로 기록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세수(tax receipt)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 경제 활동이 일어났을 때 PSNB에 기록하는 반면 관련 세금 납부는 다소 늦은 PSND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재정환상 (fiscal illusions)

재정환상으로 인한 위험은 회계처리가 실제 재정상태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왜곡하여 잘못된 정책결정을 유도한다. 재정환상은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지출을 대체하는 재무적 거래(Financial transactions that replace spending), 자산·부채 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조세지출, 자산매각의 모호한 영향,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복지혜택 부담을 민간으로 이전한 사례 등이 있다.

- 부외금융의 대표적 사례는 민간투자사업 계약 PFI(Public Finance Initiative)와 PF2, 주택협회의 재분류로 인한 공공부문 재정상태표에서 주택 관련 차입(연평균 30억 파운드)과 지출, 채무(약 700억 파운드)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게 된 것이다.
- 지출을 대체하는 재무적 거래로는 보조금 지원을 용자로 대체한 학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 보조금에서 용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등교육 관련 재원조달이 증가하였지만 지출과 적자가 감소하는 재정환상이 발생한다.

- 자산부채평가의 예시로 시장에서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물가연동국채는 시장에서 액면가액보다 높게 판매되지만, PSND 측정 시 액면가액으로 기록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표시된다.

영국 정부는 재정환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심각한 재정환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민간투자사업 계약 PFI(Public Finance Initiative)와 PF2의 폐지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우발부채 통제 강화, 보증에 대한 능동적 모니터링, 자산매각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 부처별 재무거래 지침 업데이트 - 재정환상을 유발하는 학자금대출 회계처리 변경 등의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④ 공공부문의 무형자산

공공부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평가할 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재무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공공부문 무형자산은 상당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재무제표(WGA)상 무형자산은 2%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방부 소유이다.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SPINTAN(Smart Public INTANgibles)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 무형자산을 늘려 왔다. 2015년에는 연수 프로그램과 R&D가 전체 무형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큰 증가는 연수자본(training capital)으로, 20년에 걸쳐 그 비중이 25% 증가했다. 영국에는 공공부문 무형자산의 재정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가 없으며 이해도가 낮은 상태이다. 정부는 '재정상태표 분석'을 통해 무형 및 기타 자산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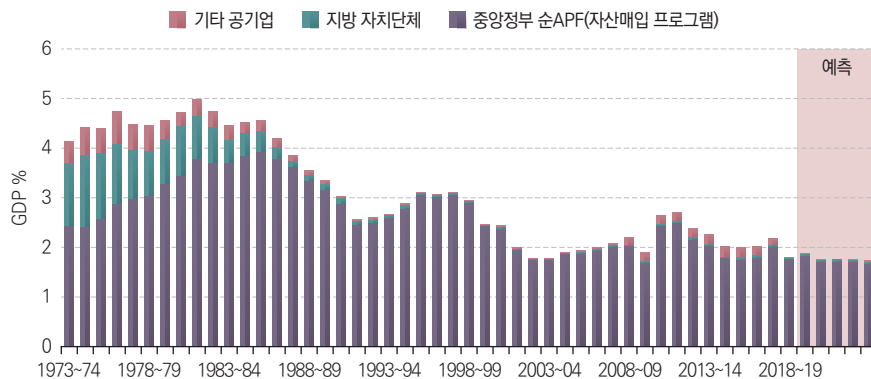
재무부의 공공부문 지식자산의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는 공공재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재정수익이 개선되거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직접적 재정수익을 포기하고 사회적, 경제적 수익을 추구했을 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중기적으로 어떤 재정위험으로 변환될지 미지수이며, 데이터로 드러난 영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2017년 보고서에 비해 재정상태표 위험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관련 위험의 모니터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위험은 공공부채 규모에 급진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미래 사건이나 위기 대응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공부문 순채무와 관련된 재정환상은 정책입안자가 공공부문의 활동을 재정상태표에서 숨기는 유인이 될 수 있어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학자금대출의 회계처리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명백한 재정환상이 제거될 예정이지만, 주택조합을 민간으로 재분류하는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재정환상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채무이자 위험

채무이자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공공지출의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대부분 과거 예산적자의 유산인 부채와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2018~19년 기준 민간 및 해외 부문에 385억파운드(GDP의 1.8%)의 채무이자를 지급했으며, 이 중 중앙정부(APF²) 순액)가 375억파운드, 공기업이 0.4억파운드, 지방 당국이 16억파운드의 채무이자를 부담했다. 공공부문은 학자금대출의 누적 이자와 외환보유액 이자 등 81억파운드의 이자를 민간과 해외부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림2 정부부문 총채무 이자지출



출처: ONS(통계청), OBR(예산책임청)

2) 자산매입프로그램(APF: Asset Purchase Facility): 영란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이 장에서는 채무이자 지출의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① 채무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민감도 ②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유효이자율 ③ 성장보정금리로 식별하여 분석했다.

① 채무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민감도

중기적으로 채무이자 예측에 대한 위험은 신규채무 발행 규모, 이자율 및 물가연동국채의 인플레이션율과 관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부채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의 약 2배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당시보다 실효이자율 변화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채무상환 비용은 짧은 만기와 물가연동국채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위기 이전보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물가연동국채 발행의 감소로 향후 지출의 민감도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채무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 **전체적인 채무의 수준**은 일반정부 총채무의 2017년과 2019년 예측치를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9~20년 이후에 감소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만기구조**를 살펴보자면 정부 채무의 대부분은 장기국채(gilts), 단기국채(T-bills), 또는 NS&I 상품(프리미엄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되며 2018~19년 말에는 이러한 형태의 국채가 일반정부 총채무의 94%를 차지하였다. 영국 채무의 평균 만기는 대부분의 G7 국가의 2배인 약 15년이며, 기존 채무의 약 40%만이 5년의 예측기간 내에 재조달될 것이기 때문에 채무이자 예측에 대한 중기적 위험을 축소시킨다.
- **시장이자율**의 경우 금융시장 상품에 내재된 시장 기대치로부터 중기 금리 예측이 도출되며, 이러한 기대치의 변동은 채무이자 예측에 위험이 된다.
- **물가연동국채**는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이다. 물가연동국채의 수익률은 소매물가지수(RPI: Retail Price Index)와 연동되며, RPI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중기 예측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한다.
- **민감도 분석**의 결과 부채수준과 만기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율 및 순현금 요구사항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또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② 자산매입프로그램(APF)과 유효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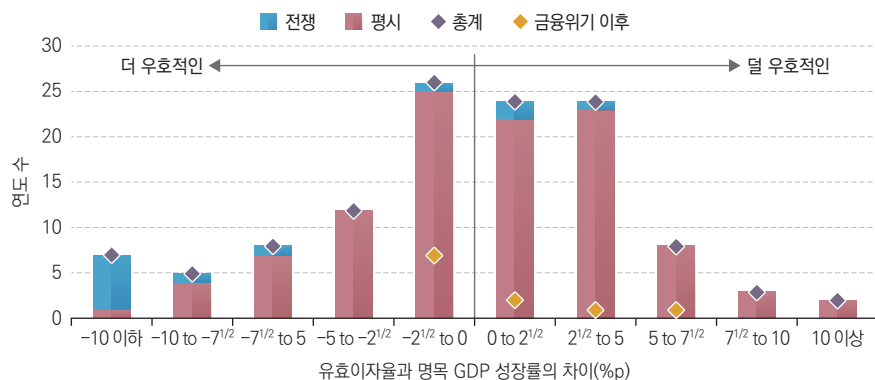
자산매입프로그램(APF)은 영란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활동을 뜻한다. 매입 자금은 은행적립금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이자율은 은행 금리로 책정된다. 2017년 『재정위험보고서』에서는 APF가 정부 차입비용을 낮추지만 공공부문 수준에서 채무의 평균 만기를 단축시키고 단기 금리변동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대응에서 정부는 APF에 대한 감독 및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정부는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영란은행이 수행하는 모든 매각에 대해 재무부 및 채무관리청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성장보정금리(Growth-corrected Interest Rate)

성장보정금리는 채무변동의 중요한 동인이자, 재정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전 IMF 수석 경제학자인 Olivier Blanchard는 미국 성장보정금리의 역사적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미국 정부의 채무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부채이월이 가능했다”는 의미로, GDP대비 채무 비율을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누적된 채무원리금을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영국 정부는 영국의 성장보정금리 이력을 문서화하고, 성장보정금리의 미래 경로가 GDP대비 공공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며, 다른 가정이 재정위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림3 성장보정금리 분포(1900~01 - 2018~19)



출처: 영란은행, ONS(통계청), OBR(예산책임청)

중기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약간의 양(+)¹⁾의 성장보정금리 가정은 재정지속가능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판단된다. 성장보정금리의 변화는 추정치 간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보정금리가 보고서의 주요 결론에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정지속가능보고서에서는 일회성 단계 증가에 따른 채무의 안정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채무 동학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보정금리가 작은 양(+)²⁾수이든 작은 음(-)³⁾수이든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듯 낮은 또는 음(-)의 성장보정금리는 채무의 일시적인 충격을 덜 위험하게 만들지만, 재정지속가능보고서에서 도출한 결론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더 중요한 과제는 인구 통계학적 추세와 보건 및 사회복지 제공의 기타 비용 압박이 장기적으로 지출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낮은 성장보정금리는 노화 및 건강 비용 압박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소 덜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유의한 효과가 충분히 크거나 지속적이어서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상쇄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여러 요인에 대한 채무이자 지출의 민감도에 대해 논의했는데, 특히 채무에 대한 유효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재정위험은 경제성장에 비해 금리를 상승시켜 채무이자 지출을 GDP보다 증가시키는 위험이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과거 사건이 미래의 성장보정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금리가 '오랫동안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지, 그리고 성장률이 회복됨에 따라 금리가 유지될지의 여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02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고품질의 국가회계기준 정립을 위하여 2020년부터 국가회계기준 개선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재무보고 개선 I, II'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가회계 프로젝트 현황	
재무보고 개선 I (2020년 수행)	재무보고 개선 II (2021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간소화 ■ 분야별 및 성질별 재정운영표 ■ 사회보험상대표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 부속서류의 개선 ■ 재무보고 개선 I 후속과제: '다시 쓰는 재무제표' 발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회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결과를 학계 등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위촉하였다. 자문단은 전문성 제고와 향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전·현직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위원 현황	
김봉환 서울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유승원 경찰대 교수	최연식 경희대 교수
이아영 강원대 교수	김동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자문단 kick-off 회의는 2021년 3월 31일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계획 및 재무보고 개선 I의 후속과제로서 '다시 쓰는 재무제표' 발간 작업, 재무보고 개선II의 세부 과제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재무보고 개선II- 주식공시 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주요 5개국과 시총 상위 5개의 민간의 주식공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의 주요 주식항목을 제시하였으며, 센터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결산보고서 번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주석항목 조사결과, 국가회계와 주요 5개국 및 민간 기업의 주석 공시사항을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석 공시사항은 적은 편이나, 주석 이외 필수보충정보, 부속서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혼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문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시 정보의 전달 방식 및 주석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재무보고 개선 I - 재무제표 간소화 과제는 해외 국가들이 재무제표는 간소화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은 주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모범사례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2020년 프로젝트 결과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주요 재무제표를 간소화하는 여러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센터는 2020년 재무제표 간소화 과제의 결과를 확산시키고,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시 쓰는 재무제표'의 발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문단은 현행 재무제표의 표시 기준을 원 단위에서 십억원 단위 등으로 조정하고, 계정과목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재정운영표는 57개 부처별 재정운영결과를 나열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개선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고, 분야별 재정운영표 등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센터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재무제표 및 주석 개선 안건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과제수행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자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03 제31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1) IPSASB ED 75, 리스에 관한 KIPF 의견제출(안)
- 2) IPSASB 정보요청서,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 유사 약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제31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4월 16일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국가회계자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에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가 현행 리스 기준서를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한 공개초안³⁾과 정보요청서⁴⁾에 대해 각각 센터가 작성한 의견서(안) 및 답변서(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3) Exposure Draft 75, Leases(2021. 1.)

4) Request for Information, Concessionary Leases and Other Arrangements Similar to Leases (2021. 1.)

가. IPSASB ED 75, 리스에 관한 KIPF 의견제출(안)

ED 75, 리스는 현행 리스 기준서인 IPSAS 13, 리스를 대체하기 위한 공개초안으로, IFRS 16, 리스의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모형을 공공부문에 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초 IPSASB는 2018년 1월에 발표한 ED 64, 리스를 통해 리스이용자에게만 사용권 모형(right-of-use model)을 적용하는 IFRS 16과 상이하게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에 도 사용권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나는 등 합치된 의견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에 IPSASB는 2020년 3월 정례회의에서 리스 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나누어 재추진할 것을 결정하고, 우선 IFRS 16과 일치하는 리스 공개초안인 ED 75를 개발한 후, 여기에 정보요청서를 통해 수집된 공공부문 특유의 이슈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1 IPSASB, ED 75 프로젝트 계획

개정 단계		단계별 계획
1단계	IFRS 16 기반 회계처리 개발	· ED 75 발표를 통해 IFRS 16 기반의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모형 제안 · 공공부문 특유 이슈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요청서(RFI) 발표
2단계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반영	· 정보요청서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할인리스, 접근권 등 공공부문 특유 이슈 반영

IPSASB는 IFRS 16을 기반으로 ED 75를 개발하면서 일부 IFRS 16 규정을 공공부문에 맞게 수정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실체가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하여 ED 75에서는 이와 관련된 IFRS 16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 IPSASB 개념체계에 부합하도록 리스의 식별에 관한 적용지침에서 “경제적 효익”을 “경제적 효익 또는 서비스 잠재력”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IPSASB는 지난 4월에 발표된 ED 77, 측정(Measurement)에서 공정가치의 정의를 새롭게 제안⁶⁾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에 대해 적용되는 IPSAS와 IFRS의 회계처리 모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IPSAS			IFRS	
	IPSAS 13	ED 64('18. 1.)	ED 75('21.1.)	IAS 17	IFRS 16('16. 1.)
리스이용자	위험보상 모형	사용권 모형	사용권 모형	위험보상 모형	사용권 모형
리스제공자	위험보상 모형	사용권 모형	위험보상 모형	위험보상 모형	위험보상 모형

6) ED 77, 측정은 공정가치를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측정일의 가격”으로 정의하며, 이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정의와 동일하다.

IPSAS 13에서 사용한 공정가치의 정의를 ED 75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⁷⁾ 이는 ED 77의 새로운 공정가치 정의를 도입할 경우 리스의 분류 및 판매후리스 회계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ED 75를 IFRS 16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한 IPSASB 결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상기의 IPSASB 판단과 관련하여 ED 75는 3개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다음은 센터가 ED 75에 대해 국가회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IPSASB에 제출한 의견을 요약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서의 원본과 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서는 IPSASB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0>).

표2 ED 75, 의견요청사항 및 KIPF 의견 요약

의견요청사항(SMC)	KIPF 의견
<p>[SMC 1] IPSASB가 공공 부문에 맞게 IFRS 16을 수정한 방법에 동의하는가?</p>	<p>[KIPF 의견]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IPSASB는 IFRS 16 기반으로 ED 75를 개발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2020년 11월에 발표된 IASB의 '판매후리스' 측정 관련 개정 제안사항*까지 ED 75에 반영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② ED 75에서 도입한 IFRS 16의 Covid-19 실무적 간편법은 그 적용대상 기간이 실제 Covid-19 영향 기간과 다를 경우 자의적 회계처리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도입 적정성 검토 필요</p> <p>[부대의견] 리스 프로젝트 Phase 1에서 전대리스와 관련된 리스 이용자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의 비대칭 이슈 고려 필요 (예) 매출액에 연동된 변동리스로 조건의 전대리스이면서 상위리스는 고정리스로 조건이고 두 리스의 리스기간이 동일한 경우, 중간 리스제공자가 당해 전대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할지, 또 전대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 제거손익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발생 가능함</p>
<p>[SMC 2] ED 77, 측정의 공정가치 정의와 상이한 IFRS 16 공정가치 정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는가?</p>	<p>[KIPF 의견] IPSASB 제안에 동의함</p> <p>[부대의견] 지침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ED 75의 결론 도출근거에서 리스 관련 거래에 유출가치 기반의 공정가치 정의가 개념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함</p>
<p>[SMC 3] ED 75의 리스의 식별 적용지침에서 "경제적 효익"과 "서비스 잠재력"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가?</p>	<p>[KIPF 의견] IPSASB 제안에 동의함</p> <p>[부대의견] 없음</p>

* Lease Liability in a Sale and Leaseback – Proposed amendment to IFRS 16

7) ED 75, 리스는 공정가치를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자산이 교환되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IFRS 16, 리스도 이와 동일하게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나. IPSASB 정보요청서에 관한 KIPF 답변서(안)

IPSASB는 리스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에 ED 75, 리스와 함께 정보요청서, 할인리스 및 기타 리스 유사약정을 발표하였다. 정보요청서는 각 이해관계자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특유의 리스 혹은 리스 유사약정의 성격과 회계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다음은 정보요청서에서 예시하는 공공부문 특유의 리스 약정의 유형과 각 유형별 대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3 공공부문 특유리스약정 유형 및 대표사례

공공부문 특유 리스 약정의 유형		대표적 사례
(1) 할인리스	시장조건보다 낮은 조건으로 체결한 리스계약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국제지원기구에 사무용 건물을 리스함
(2) 무상리스 또는 명목상의 대가를 수취하는 리스	대가를 수취하지 않거나 명목상의 대가(예: 1원)를 수취하는 리스 유형의 약정	정부가 사무용 시설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함
(3) 접근권(또는 부동산에 접근할 권리)	대가를 받고(완전한 자산의 사용권이 아닌) 자산의 접근권만 이전하는 약정·법령	사유지(농장)를 거쳐 접근 가능한 산책로를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관리 부처가 농장 소유주에게 일정 기간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일반인 접근권을 제공받음
(4) 사용권을 제공하는 약정	제3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사용하여 공공부문실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	약정에 따라 비정부실체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5) 공공주택임대차약정	공공주택 제공자로서의 공공부문실체의 권리가 제약되는 리스 유형의 공공주택 관련 약정	법령 등에 따라 자산을 반환해야 할 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공공주택 관련 약정
(6) 실행 중인 리스약정이 있는(없는) 공유 부동산	공식적인 리스계약 없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만드는 약정	공식적인 리스계약서 없이 공공부문 활동들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배치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국가회계기준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회계기준들은 할인리스, 무상리스 등 IPSASB가 정보요청서를 통해 요청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터는 국가결산보고서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결산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보요청 주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나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은 센터가 정보요청서에 대해 IPSASB에 제출한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표4 IPSASB 정보요청서에 대한 KIPF 답변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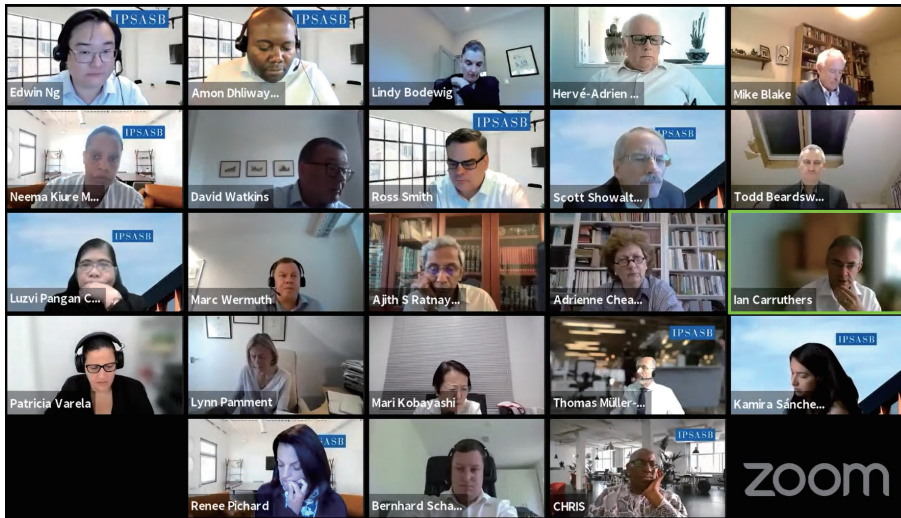
정보요청 주제	KIPF 답변
(1) 할인리스	<p>[○○공사의 매입후재임대(Sales & Lease Back) 거래]</p> <p>○○공사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부동산 등을 매입 후 이를 5년에 걸쳐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Sales & Lease Back)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자산의 매입 가격을 청산가치가 아닌 적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하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약 4%)으로 산정된다. ○공사는 이러한 매입후재임대 거래를 일반적인 자산취득 거래와 임대 거래로 회계처리하므로 할인액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별도로 반영 또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p>
(2) 무상리스 또는 명목상의 대가를 수취하는 리스	<p>[△△대학교의 □□국제기구에 대한 사무소 부지 무상 임대 거래]</p> <p>□□국제기구는 2012년 △△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학교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한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국제기구는 당해 건물의 사용권의 공정가치를 사용권자산과 비교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임차료의 할인 요소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대학교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p>
(3) 접근권(또는 부동산에 접근할 권리)	<p>[조사된 한국 사례 없음]</p>
(4) 사용권을 제공 하는 약정	<p>[조사된 한국 사례 없음]</p>
(5) 공공주택임대차 약정	<p>[△△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임대 거래]</p> <p>△△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지원대상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시세의 30%)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이나, 특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당해 주택을 영구히 임차할 권리를 가지므로 이 경우 공공주택 임대인으로서의 △△공사의 권리가 제약된다.</p> <p>△△공사는 임대계약 체결 시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임대기간의 연장에 따른 할인 요소를 별도의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즉 공공주택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제한 요소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반영 또는 표시되지 않는다.</p>
(6) 실행 중인 리스 약정이 있는(없는) 공유 부동산	<p>[◎◎부처의 연구단지 조성 사례]</p> <p>2014년 ◎◎부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임차료 절감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토지)을 위탁 개발하여 취득한 연구단지에 11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입주시켰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부처와 사용협약을 맺고 연구단지에 입주하였으며, 시설 사용료는 무상이다. ◎◎부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무상 사용협약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반영되거나 표시되지 않았다.</p>

04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2021년 1·2분기 정례회의 개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21년 1분기 및 2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였다.

1분기 정례회의는 2월 25일의 점검회의와 3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본회의로 나누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분기 정례회의에서는 ‘수익’, ‘자연자원’, ‘유산’, ‘제한된 범위의 개념체계 개정’,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분기 정례회의는 6월 15일부터 6월 18일, 6월 22일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자연자원’, ‘수익’과 ‘이전비용’,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IPSASB 2분기 정례회의 개최 - YouTube 실황(2021년 6월 16일)

1분기 및 2분기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프로젝트와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회의 실황은 IPSASB 홈페이지⁸⁾와 IPSASB 유튜브 채널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IPSASB 1분기 및 2분기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진행단계	주요 논의사항	
		1분기	2분기
수익(Revenue)	IPSAS 개발 (ED 의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0,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과 ED 71,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통합 필요성 검토 ‘구속력 있는 약정’의 정의 및 식별 관련 적용 지침과 결론도출근거 보완 수행의무가 있는 수익과 수행의무가 없는 수익의 구별기준 관련 적용지침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는 약정’ 개념 확정 ‘집행가능성’의 행사 방법 관련 논의 개념체계의 부채 정의 개정 및 수익 프로젝트 적용 여부 논의
이전비용 (Transfer Expenses)	IPSAS 개발 (ED 의견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속력 있는 약정’ 개념 확정 ‘집행가능성’의 행사 방법 관련 논의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s)	CP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층토자원 관련활동 원가에 관한 지침의 IPSAS 포함 필요성 검토 생물자원 관련 회계이슈 논의(특징, 범위, 통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자원, 생물자원, 하층토자원의 설명 개선 물(water) 관련 회계이슈 논의(범위, 통제)
유산(Heritage)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Infrastructure asset)	ED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 ED 77, 측정, ED 78, 유형자산 사이의 공통 이슈 해결 인식되지 않은 유산 유형 자산(Heritage PP&E)에 대한 공시 지침의 ED 78, 유형자산 내 위치 결정 	-
측정(Measurement)	ED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77 적용 시 타 기준서 개정사항 검토 	-

8)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virtual-meeting-june-15-18-and-22-2021>

9) <https://www.youtube.com/c/IPSASB/featured>

표1 의 계속

프로젝트	진행단계	주요 논의사항	
		1분기	2분기
제한된 범위의 개념체계 개정 (Conceptual Framework – Limited Scope Update)	ED 개발	· ED 76, 개념체계 일부 개정 및 ED 77, 측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슈(예: 자본 및 자본유지의 개념)에 대한 프로젝트 추진 계획 수립	· 개념체계 관련 잔여 이슈 검토 -서비스잠재력 -신중성(Prudence) -중요성: 개정범위 검토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PB 개발	· IAS 26,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에 상응하는 IPSAS 개발 목적의 프로젝트 개요(PB) 승인	· IAS 26 이상의 적용범위 설정 필요성 논의 · 보고실체의 성격 논의 · 퇴직급여제도 관련 요구 대상 재무제표 검토
IPSAS 5, 차입원가 개정 (비권위적 지침) (Amendments to IPSAS 5, Borrowing costs(non-authoritative guidance))	승인	-	· 응답분석 · 최종승인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0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 2021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7~9월)

01 2020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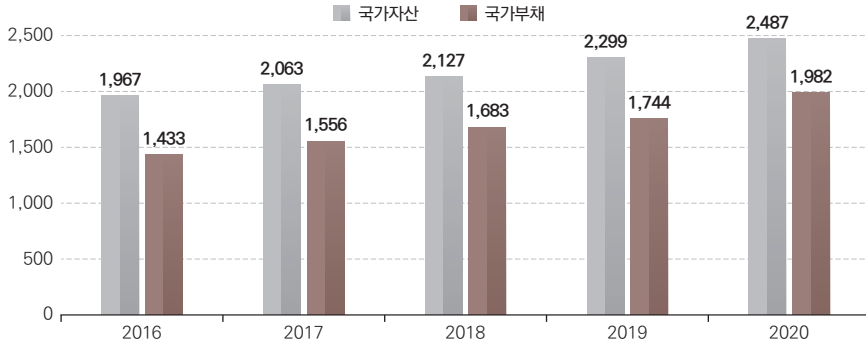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에 기획재정부로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3.1조원 감소, 국가부채는 3.6조원 감소하였다.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487.1조원, 부채는 1,981.7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05.4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187.7조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와 기타 발생주의 부채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238.0조원 증가하였다.



그림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6~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6~2020 각 연도

2020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48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7.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01.3조원, 유동자산 45.1조원, 일반유형자산 26.5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8%와 24.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20.3% 순이다.

그림2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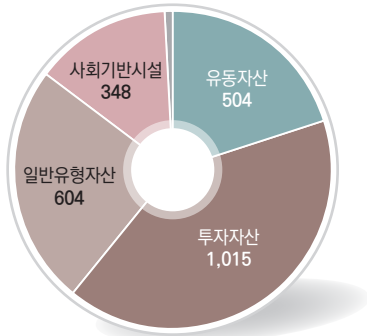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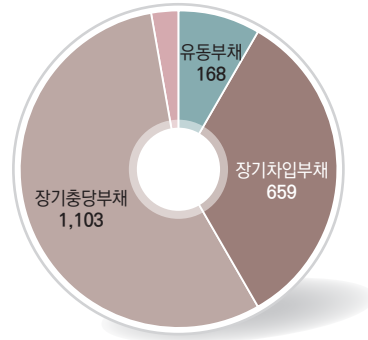


그림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0

2020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292.1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39.0조원, 단기금융상품 69.0조원 등 총 504.0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707.0조원, 장기대여금 164.8조원 등 총 1,015.3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375.4조원, 건물 69.9조원 등 총 604.1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195.3조원, 철도 40.9조원 등 총 347.9조원이고,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1.8조원 등 총 2.0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6.8조원 등 총 13.8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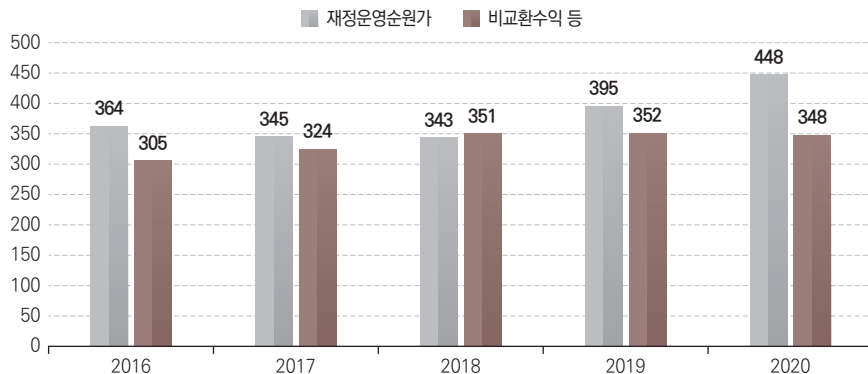
2020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1,981.7조원으로, 전년 대비 238.0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111.6조원, 장기충당부채 102.3조원, 유동부채 14.4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6%, 장기차입부채는 33.2%, 유동부채는 8.5%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83.6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0.1조원 등 총 167.9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642.8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2.6조원 등 총 658.5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102.6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044.7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49.0조원, 기타 8.9조원(보증충당부채 5.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2.7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9.5조원, 장기미지급금 13.2조원이다.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448.1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347.5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00.6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52.9조원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4.2조원 감소하여,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43.5조원에서 100.6조원으로, 전년 대비 57.1조원 증가하였다.

그림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6~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6~2020 각 연도

이번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02 2021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7~9월)

「2021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6월 23일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6월부터 7월까지의 과정은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어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이 듣고 싶은 일정에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8월 이후의 과정은 코로나19 추세를 확인하여 교육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하에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등 총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1 교육 커리큘럼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회계이론	1 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일반회계의 원리 2. 재무제표의 구성 3. 회계의 순환과정 4.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만들기 5. 재무상대표(발생주의) 만들기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이해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6.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기본사례
	2 일차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 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 5. 원가의 재분류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자산표와 재무제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자산표와 재무제표		
국가회계실무	1 일차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 사례 및 해결방안	5.0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 2, 4~7, 9, 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3, 8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대표 살펴보기 4. 주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표1 의 계속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재무결산실무	1 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202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2 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국가회계의 활용	1 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표2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21년 6~10월(총 13회)
교육 지역	6~7월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하여 지역 무관 이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참조하여 교육운영 방식 결정
대상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약 9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1일간, 1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



국가회계 전문교육 1차 국가회계실무 과정(6.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디어센터



재정통계 동향



- 2020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Brief 발간
-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Brief 발간

01 2020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1) 포괄범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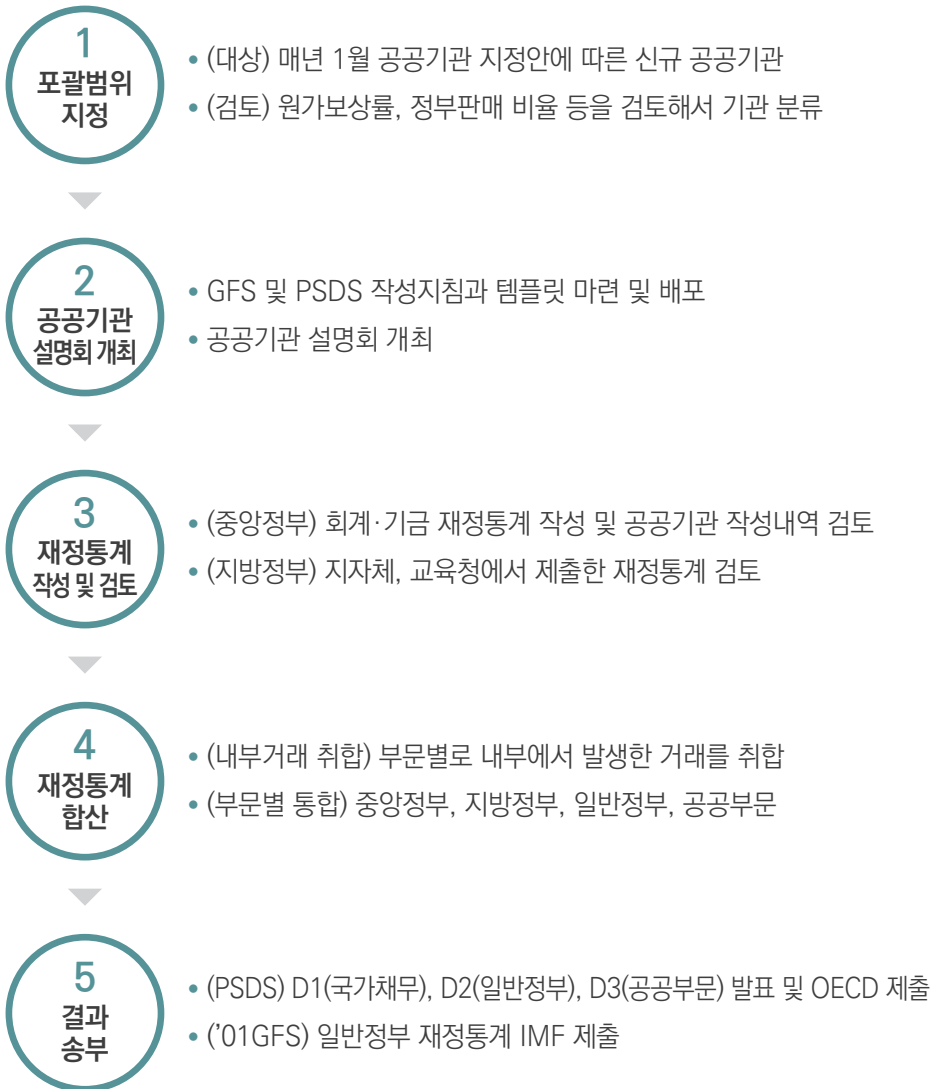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 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1년 신규 지정된 12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6개 기관은 일반정부, 6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지방정부 산하 신규 공사·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 설명회 개최 및 재정통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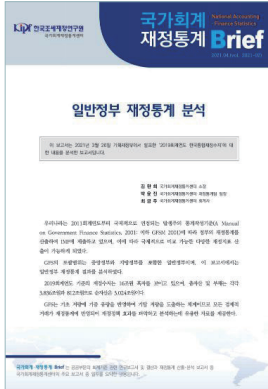
매년 재정통계 작성 대상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취소하고 유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관별로 제출받은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 재정통계 검토를 수행한 후, 기관별 재정통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3)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가 확정되면, 각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하고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02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Brief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분석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보고서 및 보도 자료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Brief에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기존 내용에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 GFS 재정지표

GFSM에 따라 산출되는 통계 보고서의 재정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정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인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1 GFS 재정지표

유형	2019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65조 (3.4%)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16조 (0.9%)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 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3,024조 (157.6%)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순금융자산	803조 (41.9%)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811조 (42.2%)	총부채-주식및기타 지분과 파생상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 GFSM 2001에서는 순융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정부운영표상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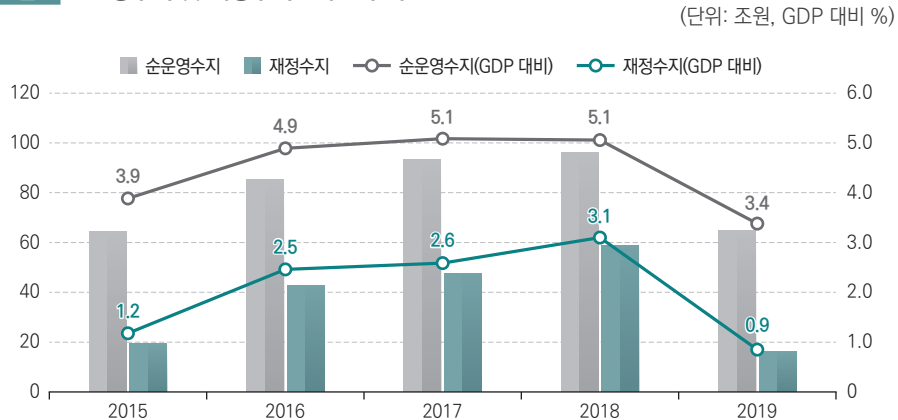
표2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505	4.2	535	5.9	568	6.3	610	7.4	634	3.9
총지출(B=C+D)	484	4.5	515	6.4	525	2.0	563	7.2	575	2.2
총비용(C)	443	5.2	470	6.2	483	2.7	517	7.0	538	4.0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1	△2.1	45	8.7	42	△5.8	46	8.5	37	△19.0
순운영수지(A-C)	62	△2.0	64	3.7	85	32.2	93	9.6	96	2.8
재정수지(A-B)	21	△1.7	20	△6.2	43	119.8	47	10.8	59	23.8

GFSM에 따라 산출되는 주요 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오다 201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총수익의 증가(사회보험료, 조세 등 전기 대비 3.4%)보다 총비용의 증가(사회급여, 보조 등 전기 대비 9.8%) 및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증가(전기 대비 30.7%)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전기 대비 11.2%)가 더 크게 발생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1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5개년 추세



다. 자산과 부채의 추세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표3 자산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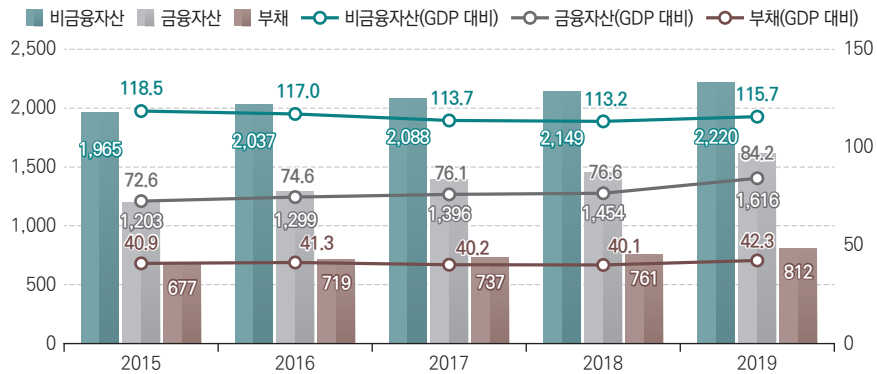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491	4.1	2,617	5.0	2,747	5.0	2,842	3.5	3,024	6.4
자산	3,169	5.1	3,336	5.3	3,484	4.4	3,603	3.4	3,836	6.5
비금융자산	1,965	2.7	2,037	3.6	2,088	2.5	2,149	2.9	2,220	3.3
금융자산	1,203	9.2	1,299	8.0	1,396	7.5	1,454	4.2	1,616	11.1
부채	677	8.9	719	6.1	737	2.6	761	3.2	812	6.7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2019년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부채의 GDP 대비 규모는 2017년 이후 소폭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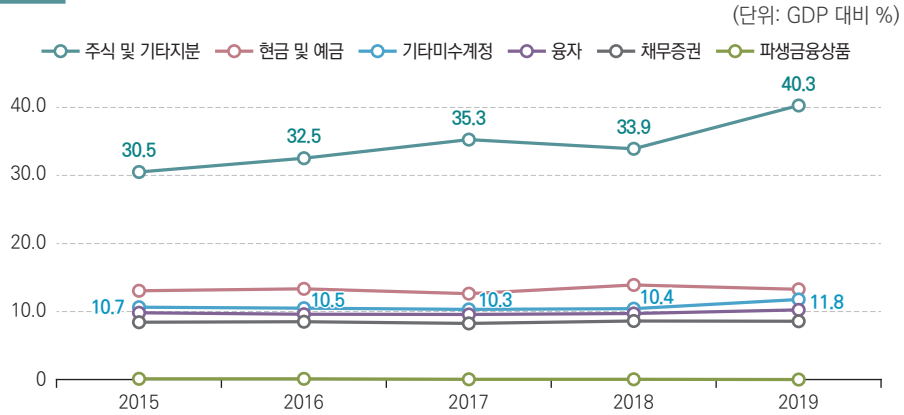
그림2 자산과 부채의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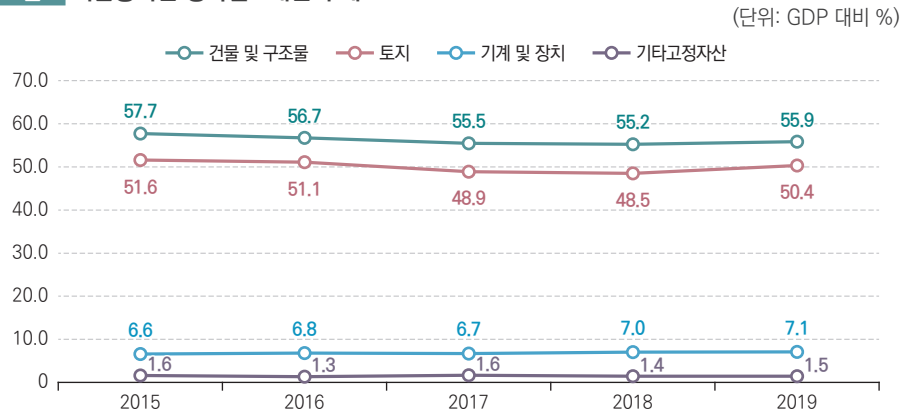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2018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해 오다 2019년에 큰 폭(7.6%p)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식및기타지분이 6.4%p, 기타미수계정이 1.3%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3 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이전의 감소 추세와 달리 2019년에 전기 대비 2.5%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성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 및 구조물과 토지가 전기 대비 각각 0.6%p, 1.8%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4 비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라.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2019년 자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가 49조원, 토지 평가 등으로 인한 보유손익이 16조원, 누락자산 등재 등으로 인한 기타내용변화가 7조원 증가하여 총 72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및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66조원, 주식및기타지분 및 기타미수계정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90조원, 기타내용변화 5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62조원이 증가하였다. 2019년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50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으로 1조원, 기타내용변화로 0.4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51조원이 증가하였다.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표4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2019〉						(단위: 조원)
구분	2019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19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603	114	106	12	3,836	
비금융자산	2,149	49	16	7	2,220	
금융자산	1,454	66	90	5	1,616	
부채	761	50	1	0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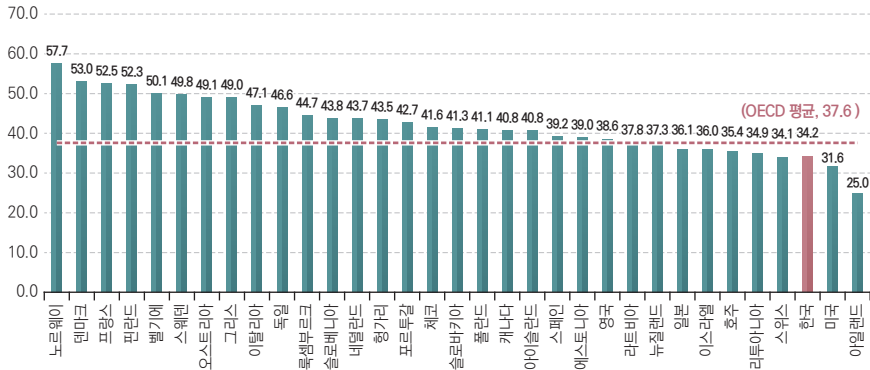
〈2018〉						(단위: 조원)
구분	2018년 기초	변동 내역(flow)			2018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484	113	△7	13	3,603	
비금융자산	2,088	37	2	22	2,149	
금융자산	1,396	75	△9	△9	1,454	
부채	737	17	6	1	761	

마.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19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대비 34.2%로, OECD 평균인 37.6%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5 2019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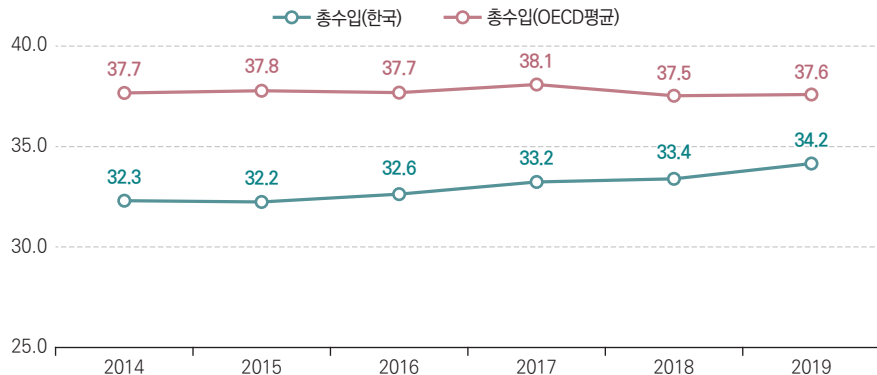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20.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수입은 2014년 32.3%에서 2019년 34.2%로, 1.9%p 증가한 반면 OECD평균은 2014년 37.7%에서 2019년 37.6%로, 0.1%p 감소하였다.

그림6 2019년 일반정부 GDP대비 총수입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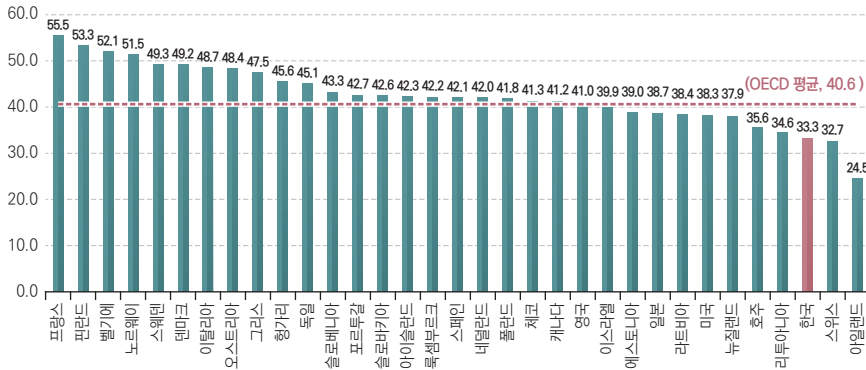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20.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2019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3.3%로, OECD 평균인 40.6%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7 2019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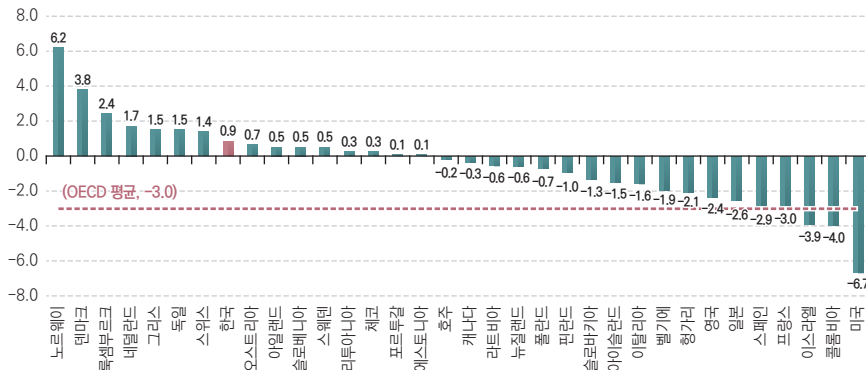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20.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2019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0.9% 흑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3.0% 대비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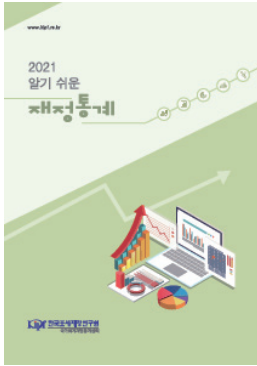
그림8 재정수지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8 (2020.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03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념 및 우리나라 재정통계 개편과정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GFSM 2014 도입이 미칠 주요 변화와 2019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하여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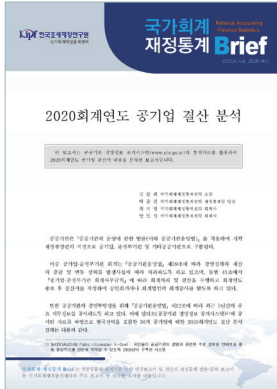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통계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표1 『2021 알기 쉬운 재정통계』 목차

PART	목차
1	재정통계 살펴보기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부록	2019 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04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Brief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에 대한 「202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 분석」 Brief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공기업의 COVID-19 영향 및 충당부채 현황에 대해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¹⁰⁾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36개 공기업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 알리오(ALIO: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

가. 공기업 재무성과

2020회계연도 36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33.4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6.9조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손익 역시 △6,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1% 감소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2.7조원 ↑)하였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재평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2.3조원 ↑)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의 공기업¹¹⁾ 손익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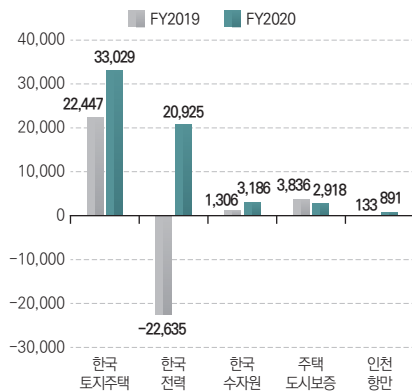
(단위: 억원)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수익(매출)	1,450,158	1,451,620	1,334,489
영업손익	82,482	72,306	69,082
당기순손익	20,826	13,058	△6,539
총포괄손익	31,693	11,409	18,335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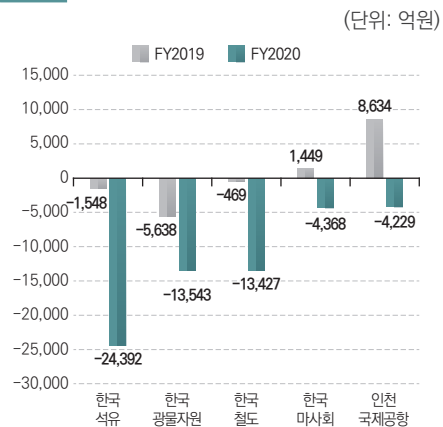
2020회계연도 당기순손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1 당기순손익 상위 공기업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그림2 당기순손익 하위 공기업



11)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 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집계에서 제외함(이하 동일)

나.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손익은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감소하였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 매출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주택 매출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COVID-19로 인한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11조 7,131억원 감소하였다.

2020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은 6,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597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해외사업손상차손 증가로 한국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심화되었으며 COVID-19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당기순손익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1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19	2020	증감	
증가	한국전력공사	△22,635	20,925	43,560	COVID-19 영향으로 전기판매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가 크게 감소하여 당기순손익 흑자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	22,447	33,029	10,582	분양주택 매출 증가 등 당기순이익 증가
	한국수자원공사	1,306	3,186	1,881	개발사업 분양매출 증가 등 당기순이익 증가
감소	한국석유공사	△1,548	△24,392	△22,844	저유가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손상차손·투자기업 지분법 손실 증가로 당기순손실 확대
	한국철도공사	△469	△13,427	△12,958	COVID-19 영향으로 운송수송 감소 등 영업손실 증가, 용산환급가산금 기저효과 등으로 당기순손실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	8,634	△4,229	△12,863	COVID-19 영향으로 운항 및 여객 수요 감소, 임대료 감면 등으로 영업손실 기록, 팬데믹으로 영업권 및 일부 자산 손상인식 등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다. 공기업 재무상태

2020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6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15.4조원 증가(2.6%)하였고, 부채는 398.1조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2.5%)하였다. 공기업 자산은 주로 전력·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투자과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 및 부동산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교통수송 부문의 자산재평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부채 또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림3 공기업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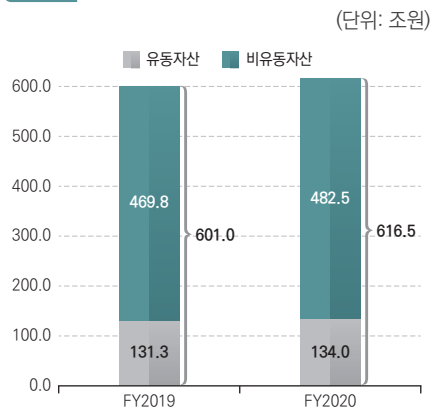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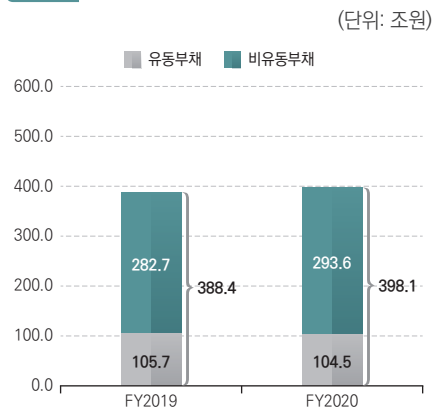


그림4 공기업 부채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설비 등 유형자산(40.7%)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8.6%),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0%)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2.1%)와 장단기매입채무(1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5 공기업 자산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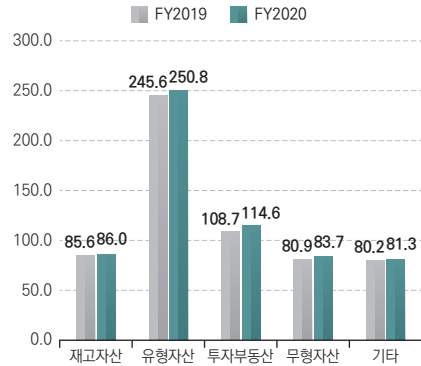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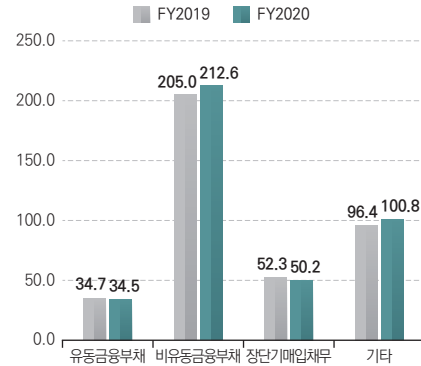


그림6 공기업 부채 구성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투자부동산 등이 전체 공기업 자산의 63.0%를 차지한다.

그림7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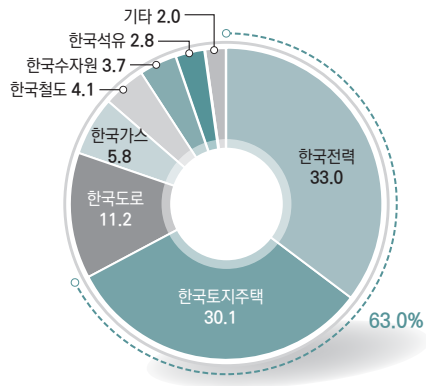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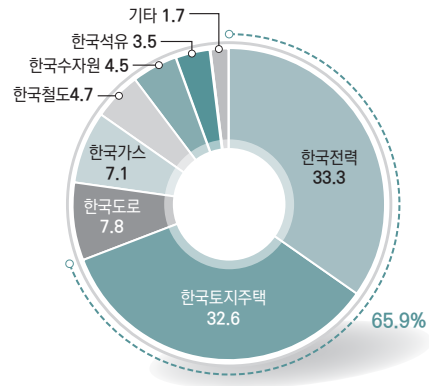


그림8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라.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1)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15.4조원 증가하였다. COVID-19로 인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자산이 감소하였음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증가로 임대주택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등 유형자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채권발행,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투자 및 원전해체 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증가하였다.

표2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구분	기관	자산		증감	내역
		2019	2020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176.5	185.3	8.8	투자증가로 분양주택 재고자산 증가(1조 5,312억원) 및 건설·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자산(투자부동산) 지속적 증가(4조 9,526억원)
	한국전력공사	197.6	203.1	5.5	한수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전력설비 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4조 76억원), 보유자금 일시적 운용으로 현금 및 유동금융자산 증가(1조 4,332억원)
	한국도로공사	65.8	69.2	3.4	서울-세종, 파주-포천 노선 착공으로 개발 중인 무형자산 증가(1조 7,580억원) 및 밀양-울산, 도로개량 완성·대체로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유료도로관리권 증가(1조 4,295억원) 등 무형자산 증가(3조 1,854억원)
	한국철도공사	22.7	25.3	2.6	COVID-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현금 및 매출채권이 감소(5,656억원)하였으나, 토지재평가 등 유형자산 증가(2조 9,033억원)로 전년 대비 자산 증가

표2 의 계속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19	2020	증감	
	한국 가스 공사	39.3	35.9	△3.4	감가상각 및 해외사업 자산손상 등 유·무형자산 감소(1조 3,953억원), LNG구매단가 하락 등 재고자산 감소(1조 2,550억원), 판매단가 하락으로 매출채권 감소(8,800억원)
감소	한국 석유 공사	18.7	17.5	△1.2	감가상각 및 자산손상 등 석유가스개발자산 감소(1조 1,804억원), 토지재평가로 인한 증가(6,439억원)
	한국 광물 자원 공사	3.9	3.0	△0.9	COVID-19로 인한 암바토비 니켈광산 조업중단 및 생산계획 변경 등으로 암바토비프로젝트 손상차손 및 지분법손실 인식, 암바토비 재고자산 감소 등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 차입금 및 사채

2020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전년 대비 7.2조원 증가한 245.8조원으로 부채의 많은 부분(61.7%)을 차지한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39.9%로 민간의 29.4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부문의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는 1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원전 5-6호기, 전력설비 투자 등 건설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 및 사채가 1.8조원 증가하였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투자 및 운전자금 충당을 위한 추가차입으로 각각 0.4조원 증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COVID-19 경기침체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하 등으로 운전자금이 감소하여 차입금 및 사채가 2.2조원 감소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증가 폭은 축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부문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69.0조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 증가 및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사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다.

교통·수송부문도 58.5조원으로 전년 대비 3.9조원 증가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1.9조원 증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단계 사업비 집행,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사채 1.3조원 증가 등의 영향이다.

그림9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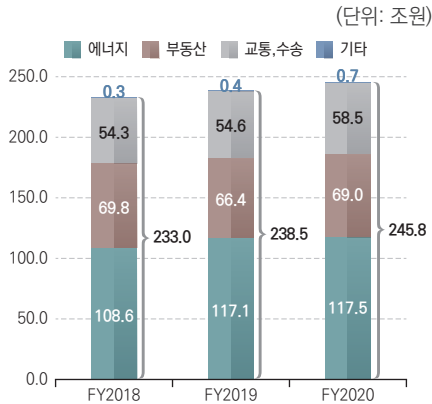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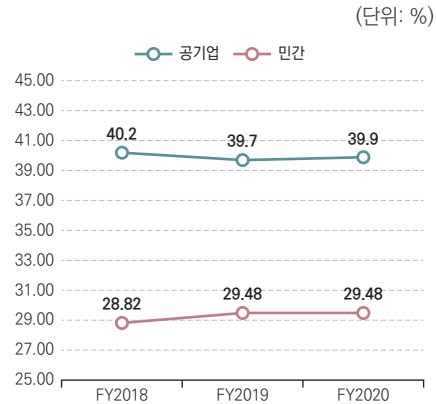


그림10 차입금의존도¹²⁾ 추이 민간 비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및 한국은행, 『2019년 기업경영분석』, 2020.

3) 사후처리, 복구, 정화비용을 위한 총당부채 현황 분석

공기업은 보유한 자산의 추후 처리·복구·정화비용에 대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총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사후처리, 복구, 정화비용을 위한 총당부채 설정액은 37.6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9.5%에 해당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해체 총당부채 20.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가총당부채 14.5조원, 한국석유공사의 유정시설 종료시점의 복구·정화비용에 대한 총당부채 2.4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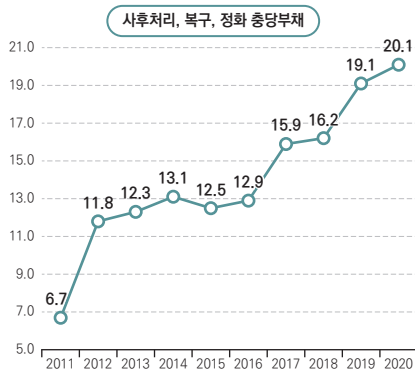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총당부채

우리나라에는 총 26기의 원전 중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제외한 24기가 가동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을 포함한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사후 해체·복구 및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위해 총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원전해체 예상시점의 소요비용(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총당부채를 산출하는데 2020회계연도 말 잔액은 20.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12)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사채)/총자본, 2020회계연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19년 수치 적용

그림11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총당부채

(단위: 조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단가 추이¹³⁾〉

구분	중·저준위 방폐물 /드럼당	사용 후 핵연료 적립잔액 /드럼당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총당금/호기
'15. 6.~	12,190천원	(경수로) 319,814천원/ 다발 (중수로) 13,202천원/ 다발	6,437억원
'17. 12.~	13,730천원	상동	7,515억원
'19. 12.	15,190천원	상동	8,129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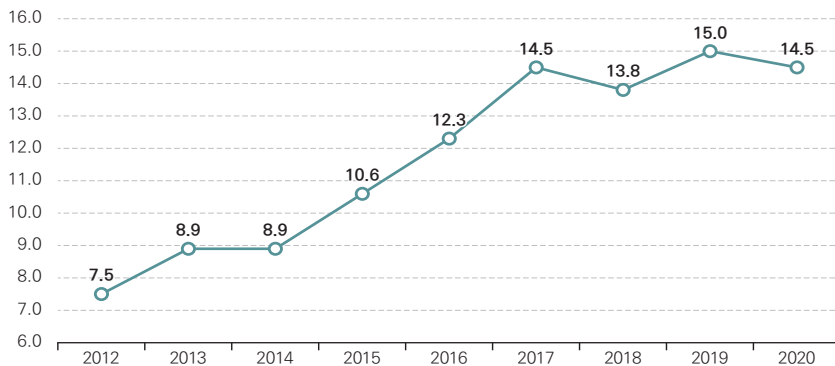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가총당부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의 사업 준공 시 향후 추가로 발생할 예상비용을 추정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할 유동총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말 설정액은 14.5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12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가총당부채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13)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마.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0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10.8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출자금의 57.8%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13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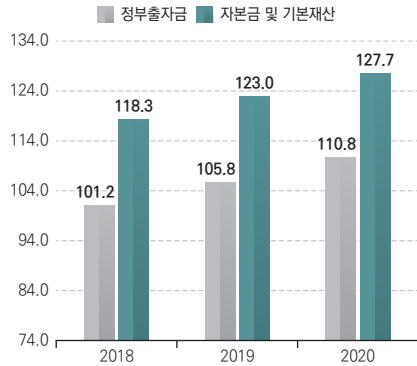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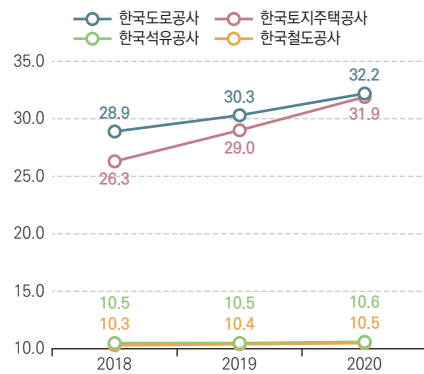


그림14 주요 기관별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2020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조 6,095억원으로 COVID-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한 9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배당금이 증가하여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2,943억원 증가하였다.

그림15 공기업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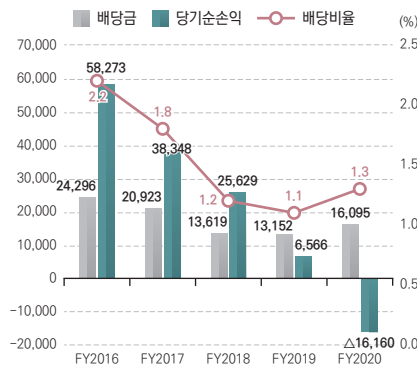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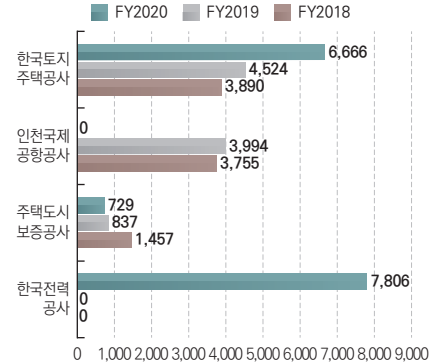


그림16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바.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0회계연도 수익성 및 생산성의 경우 지표에 따라 상승과 하락 부분이 있으며, 안정성의 경우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영업손실이 확대되었지만 한국전력 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저유가 등으로 인해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사업 손상차손 및 투자기업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p 하락하였다.

대표적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는데, 부채가 증가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부출자금 증가 및 자산재평가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5.8%p 증가한 145.6%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액이 전년 대비 0.9조원 감소하였지만 COVID-19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2.1%p 증가한 3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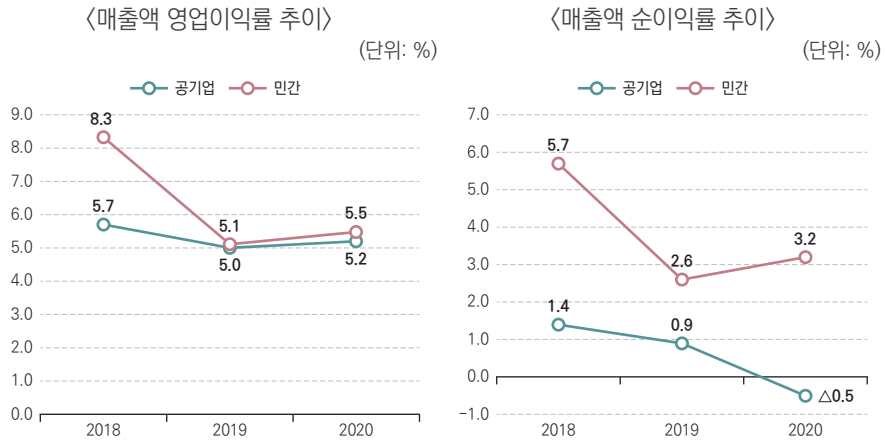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5.7	5.0	5.2	0.2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1.4	0.9	△0.5	△1.4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178.0	182.7	182.3	△0.4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161.6	139.7	145.6	5.8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29.6	30.9	33.0	2.1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5.2	24.6	21.9	△2.7
	경제활성화지수 (부가가치액/GDP*100)	2.3	2.3	2.3	0.0

매출액 순이익률은 대체로 민간이 공기업보다 높으며, 민간은 2020회계연도에 상승 전환되었으나 공기업은 하락 추세이다. 민간과 공기업 간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갭(gap)이 큰데, 이는 공기업의 경우 해외사업 또는 유·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등 영업외손실 발생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7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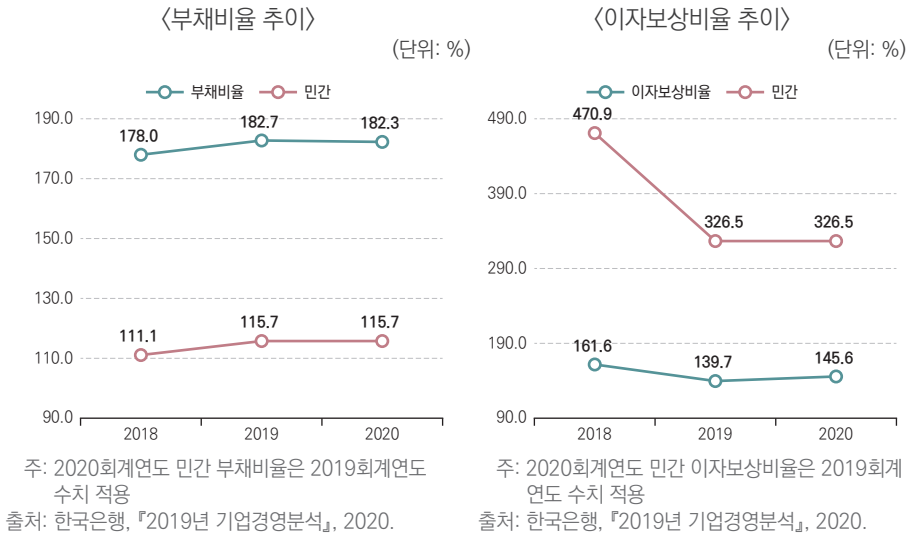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보도자료5 중 연결기준 주요 재무정보 재구성

2020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이자보상비율은 상승하여 공기업의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으로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8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사. 2020회계연도 결산 이슈

【COVID-19 영향】

2020회계연도는 COVID-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공기업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운송업과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의 타격이 컸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 자산 12.3조→12.5조 +2.0%, 부채 3.0조→4.1조 +36.1%, 손익 8,634억원→4,229억원 △149.0%

COVID-19 영향으로 운항 및 여객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항공수익이 감소하였고, COVID-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정책으로 비항공수익도 감소하는 등 영업손실을 기록함. 또한 팬데믹으로 영업권 및 일부 자산에서 손상 인식하여 당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하였음. 자산손상을 인식하였지만 4단계 건설사업 본격화, 항공사 및 입점업체 납부유예 정책 시행으로 채권 증가(3,739억원 ↑), 사업비 집행 부족분 차입 등의 이유로 전체 자산과 부채는 증가함

2) 한국철도공사

· 자산 22.7조→25.3조 +11.5%, 부채 16.3조→18.0조 +10.3%, 손익 △469억원→△1조 3,427억원 △2,761.5%

COVID-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고 전기 용산환급가산금 기저효과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됨.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용산토지 등 자산재평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자산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도 증가함

3) 그랜드코리아레저

· 자산 0.9조→0.7조 △22.1%, 부채 0.3조→0.2조 △31.5%, 손익 724억원→△643억원 △188.9%)

COVID-19 영향으로 고객 감소 및 영업장 휴장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현금 및 금융자산 매각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 충당 재원을 마련함에 따라 자산이 감소함.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매출액의 10%) 및 개별소비세, 당기법인세 감소로 부채도 감소함

4) 한국마사회

· 자산 2.7조→2.2조 △18.5%, 부채 0.1조→0.2조 +29.4%, 손익 1,449억원→△4,368억원 △401.5%)

COVID-19 영향으로 경마장 영업중단 및 발매일수 감소에 따라 적자 전환됨. 또한 마권 발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경마수득금 감소로 자산은 감소하고 마포부지 매각 선수금 증가로 부채는 증가함

5) 강원랜드

· 자산 4.4조→3.6조 △17.9%, 부채 0.7조→0.4조 △45.2%, 손익 3,346억원→△2,759억원 △182.4%

COVID-19로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매출액의 10%)·폐광지역개발기금(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25%) 등 매출과 연계된 기금 설정액 감소로 자산 및 부채 감소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익법인회계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01 공익법인회계기준 주식 사례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류 공시(2021년 4월)부터 재무제표 주석이 의무 공시사항에 포함되었다.

주석이란, 재무제표 본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는 정보,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할 수 없는 회계사건 및 그 밖의 사항으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15가지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추가로 주석을 기재(선택적 주석기재사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호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공익법인이 많이 작성하는 선택적 주석기재사항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주석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제27조 제5항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하여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공익법인의 선택에 따라 주석으로 기재하거나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세분화된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사례 1

A공익법인은 국내복지사업부, 국제구호사업부, 모금사업부, 행정지원실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x21년 국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교육복지센터에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국제구호사업팀은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2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각 부서의 인원은 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모금사업부 4명, 행정지원실 3명이고, 각 인원은 모두 연봉 30,000,000원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

A공익법인은 건물의 한 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4개 부서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하고 있다(임차료는 연간 12,000,000원).

국내복지사업부에서는 복지사업과 관련한 출장으로 인해 여비교통비가 4,000,000원 발생하였고, 모금사업부에서는 모금활동을 위한 홍보포스터 제작으로 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주석예시]

A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에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비용	50,000,000	660,000,000	12,000,000	7,000,000	729,000,000
사업수행비용	50,000,000 ¹⁾	450,000,000 ²⁾	6,000,000 ³⁾	4,000,000 ⁴⁾	510,000,000
일반관리비용	-	90,000,000 ²⁾	3,000,000 ³⁾	-	93,000,000
모금비용	-	120,000,000 ²⁾	3,000,000 ³⁾	3,000,000 ⁴⁾	126,000,000
기타사업비용	-	-	-	-	-
합계	50,000,000	660,000,000	12,000,000	7,000,000	729,000,000

1) 30,000,000(청소년교육복지센터 지급) + 20,000,000(빈민아동 구호물품 지원)

2) 사업수행비용: 30,000,000 × 15명(국내복지사업부 10명+ 국제구호사업부 5명)

일반관리비용: 30,000,000 × 3명(행정지원실 3명)

모금비용: 30,000,000 × 4명(모금사업부 4명)

3) 사업수행비용: 12,000,000 × 2/4

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 12,000,000 × 1/4

4) 사업과 관련된 여비교통비: 사업수행비용(기능별), 기타비용(성격별)

모금과 관련된 홍보포스터 제작비: 모금비용(기능별), 기타비용(성격별)

2.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8조 제3항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운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례와 같이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과 함께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을 주석으로 함께 공시한다.

사례 2

[주석예시]

(1) A공익법인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200,000,000	160,000,000
설정	70,000,000	90,000,000
지급	(20,000,000)	(50,000,000)
기말	250,000,000	200,000,000

당기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은 250백만원(전기: 200백만원)이며, 해당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추계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XX보험 등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 A공익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30,000,000	40,000,000
매도가능증권	90,000,000	76,000,000
기타	90,000,000	60,000,000
합 계	210,000,000	176,000,000

(3) 당기 중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176,000,000	156,000,000
증가	54,000,000	70,000,000
감소	(20,000,000)	(50,000,000)
기말	210,000,000	176,000,000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대부분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 유형이다. 유형자산의 경우 계정과목별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취득, 처분, 감가상각 등)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주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중 변동내용, 토지의 공시지가 정보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사례 3

[주석예시]

(1)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타	기말
토지	100,000,000	-	-	-	-	100,000,000
건물	80,000,000	-	-	5,000,000	-	75,000,000
비품	6,500,000	1,000,000	-	300,000	-	7,200,000
건설중인자산	20,000,000	-	-	-	-	20,000,000
합계	206,500,000	1,000,000	-	5,300,000	-	202,200,000

(2) 당기말 현재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소재지	면적	장부금액	공시지가
서울시 □□구 ○○동 12	XX㎡	XXX	XXX

(3)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가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류	자산	장부금액	부보금액	보험회사명
화재보험	건물	XXX	XXX	○○손해보험

4.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계정과목별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취득, 처분, 감가상각 등)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한다.

사례 4

[주석예시]

(1)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7,000,000	-	-	500,000	6,500,000

5. 사업 수익·비용의 세분화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사업수익이나 사업비용에 대한 세부 계정과목을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분화한 정보를 재무제표나 주석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재무제표 정보이용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업 수익·비용의 세부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정보는 다음과 같이 공시할 수 있다.

사례 5

A공익법인은 2x21년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수익 10,000,000원, 이자수익 9,000,000원, 배당수익 6,000,000원, 임대수익 5,000,000원, 대표수익 2,000,000원, 기념품 판매수익 1,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운영성과표는 다음과 같이 공시하였다.

운영성과표

(단위: 원)

계정과목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1. 사업수익	33,000,000	10,000,000	23,000,000
(1) 기부금수익	10,000,000	10,000,000	-
(2) 투자자산수익	15,000,000	-	15,000,000
(3) 매출액	8,000,000	-	8,000,000
2. 사업비용	26,000,000	21,000,000	5,000,000
(1) 사업수행비용	15,000,000	15,000,000	-
장학사업	4,000,000	4,000,000	-
문화지원	3,500,000	3,500,000	-
미술관운영	7,500,000	7,500,000	-
(2) 일반관리비용	4,000,000	4,000,000	-
(3) 모금비용	2,000,000	2,000,000	-
(4) 기타사업비용	5,000,000	-	5,000,000
∴	∴	∴	∴

[주석예시]

1. 사업수익

(1) 재단의 투자자산수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이자수익	9,000,000
배당수익	6,000,000
합계	15,000,000

(2) 재단의 매출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임대수익	5,000,000
매표수익	2,000,000
기념품 판매수익	1,000,000
합계	8,000,000



6. 잉여금처분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례 6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신고조정)

< 2x21. 12. 31 회계연도 말 >

-분개없음 -

< 2x22. 3. 30 잉여금 처분일 >

(차) 잉여금 1,000,000 (대) 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

잉여금처분계산서
2x20년 1월 1일부터 2x20년 12월 31일까지
2x21년 1월 1일부터 2x21년 12월 31일까지
XX재단 처분예정일 2x22년 3월 30일 처분확정일 2x21년 3월 30일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미처분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당기운영이익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잉여금처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0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센터 동향



- '공공회계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
- 국가회계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
-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공공회계 포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정부회계학회,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공공부문 회계에 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앞의 네 기관은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자료·보고서·간행물 및 기타 자료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세미나 개최 및 각 기관의 세미나, 콘퍼런스, 심포지엄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회계 관련 현안 과제 등에 대하여 상호 자문을 하고,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분기 ‘공공회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상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고하는 등 미래 발전전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부회계학회(2021. 4. 23.),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1동(113호)





국가회계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 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목적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국가회계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된 이후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국가회계 정보의 신뢰성 및 유용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센터 및 한국정부회계학회는 다양한 외부연구진들과 정부의 재정 및 회계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관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본 연구네트워크를 진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회계의 투명성 및 유용성 제고’라는 주제 아래 여섯 가지의 세부과제가 진행된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자
1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	김봉환(서울대)
2	정부회계 유용성 제고를 위한 재무지표의 분석과 개선방안	조형태(홍익대)
3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	성시경(단국대)
4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증대방안 - 정보 제공의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	김진태(중앙대) 차상권(한양대)
5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이정희(서울시립대)
6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관리 연구	남혜정(동국대)

2021년 ‘국가회계 네트워크’ 참여자 현황

- 외부연구진(8): 김봉환 교수(서울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성시경 교수(단국대), 김진태 교수(중앙대), 차상권 박사(한양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남혜정 교수(동국대), 전예진 박사과정(서울대)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5): 김완희 소장, 문창오 부소장, 한소영 팀장, 윤영훈 초빙 연구위원, 양은주 초빙연구위원

현재까지 국가회계 네트워크는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kick-off 회의는 2021년 4월 2일에 영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전반적인 네트워크 운영계획과 세부과제별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센터의견 전달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4월 24일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국가회계 네트워크 세션을 통해 4월 월례회의를 같음하였으며,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와 단국대 성시경 교수가 각각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과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토론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5월 월례회의는 5월 28일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대 김봉환 교수가 「국가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 오류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어 연구진 및 센터 실무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월례회의는 6월 2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중앙대 김진태 교수와 한양대 차상권 박사가 「국가 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증대방안 - 정보 제공의 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발표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회의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네트워크는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세부과제별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2회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12월 중순에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네트워크 6월 월례회의(2021. 6.25.),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 204호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월례회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조세전문가네트워크 중 비영리법인과세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매월 1회 1가지 주제씩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의 연구진은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 전규안 송실대 회계학과 교수(공동연구 박진하 송실대 회계학과 교수),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공동연구 전필건 언론인),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으로 구성되었다.

1차 월례회의는 2021년 4월 23일 13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PPS홀에서 이루어졌다.

‘종교단체 및 종교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주제로 박성환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와 이아영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1차 월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현황과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러한 세제 혜택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토론하였다. 또한 종교인 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차 월례회의는 2021년 5월 21일 13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산서류 공시 개선방안’의 주제로 전규안 송실대 회계학과 교수와 박진하 송실대 회계학과 교수가 공동연구한 내용을 전규안 교수가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최연식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와 이용석 한남대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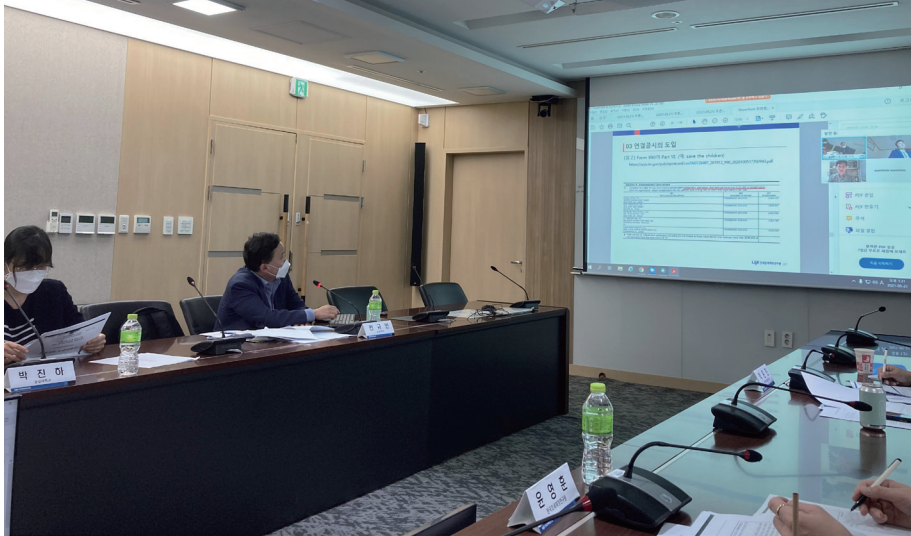
2차 월례회의에서는 공익법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는 결산서류 공시양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정정공시 및 미공시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3차 월례회의는 2021년 6월 18일 13시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학교법인 세제상 혜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의 주제로 하주희 법무법인 율림 대표변호사와 전필진 언론인이 공동연구한 내용을 하주희 변호사가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권선국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와 국지은 한국사학진흥재단 통계분석부 부장이 참석하였다.

3차 월례회의에서는 학교법인의 세제 측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발생한 부적정 사례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1차 월례회의(2021. 4. 23.),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2차 월례회의(2021. 5. 21.), 본관 7층 대회의실



조세전문가네트워크 비영리법인과세분과 3차 월례회의(2021. 6. 18.),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중회의실



국가회계
재지통계



세미나



•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가. 개요

- 대주제: 위기상황에서의 정부회계의 역할
- 일 시: 2021. 4. 23.(금) 13:00~18:30
- 장 소: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1동(113호)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현장 참석이 가능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주 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 회계·재정 연구센터
- 후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감사연구원

〈주제발표 및 토론〉

[라운드테이블]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부문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

[사 회] 최원석(서울시립대)

[토 론] 조창상(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장)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김이배(덕성여대 교수)

조종래(감사연구원 연구부장)

한소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

조연주(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총괄이사)

[국가회계네트워크 세션]

[사 회] 조광희(동국대)

[발표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이정희, 서울시립대)

[토 론] 정호용(국민대)

[발표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성시경, 단국대)

[토 론] 송민섭(서강대)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라운드테이블]

• 주요 토론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부문 역할 증대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창상 국고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 관련 주요 현안은 ① e나라도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국고보조금 신속 지원, ②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개선, ③ 보조사업자 현황 등의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변환하여 개방하는 등 정보공개 확대, ④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관리강화 추진이다. 또한 증장기 과제로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용자, 출자금 등의 집행 관리도 고려할 계획이며, 재정정보를 활용한 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부처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컨설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영철 코로나 시대는 세대·지역·계층 간 격차 확대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통합성이 주요 이슈가 되어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역할(범위, 역량) 증대는 과거 큰 정부의 회귀가 아닌 민간의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한 행정학적인 공동 생산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재원을 조세 또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 공개 및 합의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원가 비교 정보만 공개되어도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정보회계학회는 결산서상 예산의 지속적인 잉여금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재정관리, 의사결정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이배 ‘숫자를 통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하위 내역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IMD)는 과거 경험상 외형적인 충격 없이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기업회계 중심의 국가회계 투명성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학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종래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유 업무인 회계감사와 결산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재정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충하고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려면 다른 조직·분야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재정부문의 투명성, 지속가능성,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학회, 국민 등과 지속 소통하여 계속 열린 마음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소영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을 World Bank 및 OECD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도 향후 다양한 과제 수행할 예정이다. 첫째, Wor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수준 높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예산적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예산서에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챕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재정 영향에 대해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B/S접근방식(대차대조표 관점에서 재정정책을 살펴보는 것)에 기반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관리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여 별도의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보증 및 용자에 대한 보고주기를 월간으로 조정하고 수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정보 전달을 강화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보증, 용자를 장기재정전망의 위험요소로 측정하며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도 향후 ① 국가결산분석보고서 개발, ② 국가재무보고 개선 과제, ③ 국유재산의 가치평가, 예산정보와 결산정보의 연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금흐름 분석 강화 위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조연주 비영리회계부문에도 주기적 지정제 등을 통한 감사 강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공익법인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익법인 전문감사인제도를 제안할 예정으로 양성제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럽의 ‘public interest entities’ 개념에 착안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영리부문 표준감사시간을 비영리부문에도 적용하자는 공인회계사법을 발의 중에 있다.

[국가회계네트워크세션]

• 주요 발표 내용

발표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이정희, 서울시립대)

코로나19 시대의 확대재정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규모의 정부재정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GDP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주요 사업집행률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채무제한, 총지출 제한, 페이그제도의 순서로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열린재정정보시스템 확대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통하여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 세입감소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통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발표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성시경, 단국대)

재정관리에 있어서 성과정보 및 결산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프로그램의 안정성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교육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① 예산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도와의 상관관계, ② 예산집행률과 다음 연도 예산 증액/감액과의 상관관계, ③ 성과목표달성도와 다음 연도 예산의 증액/감액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부 일반재정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정보와 회계정보, 예산 간의 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 주요 토론 내용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론1 코로나19에 따른 확대재정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정호용, 국민대)

첫째, 세대 간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해외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하므로 향후 한정된 재원에 대한 재정지출의 방향을 설정(집중적으로 활용할 분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이자지급 규모보다는 차환 여부, 외환시장 안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토론2 성과정보와 회계정보의 연계에 관한 연구(송민섭, 서강대)

성과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 회계정보를 input으로 하여 input과 output을 연계하려는 것인지 접근방식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핵심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선정 이슈인지 실행의 이슈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1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2021. 4. 23.), 서울대 행정대학원 57동-1동(113호)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